

국가별 동향



미 국

계란 꿀꺽하려는 거대 뱀 부엌서 포착



미국의 한 가정집에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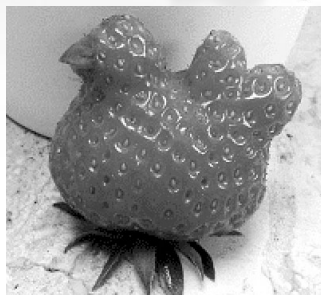
CBS 계열 지역방송 WTVR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로라 네프(Laura Neff)는 얼마 전 부엌에서 나는 황 소리에 부엌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다. 몸길이 1.2미터의 거대 뱀 한 마리가 조리대 위 바구니에 담긴 달걀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던 것. 로라 네프의 남편 로버트 힐드레스(Robert Hildreth)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아냈다. 영상에는 조미료들이 정리된 수납장을 타고 내려온 검은 뱀이 입을 짝 벌려 계란 하나를 꿀꺽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TV]



스코틀랜드

“치킨 맛 날까”, ‘닭 모양 딸기’ 화제

머리, 날개, 심지어 뾰족한 부리 모양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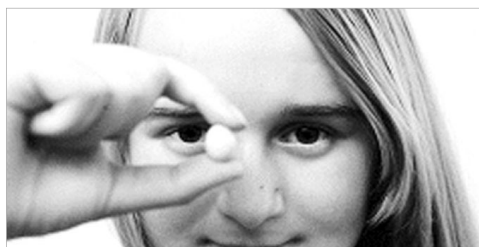
‘닭’을 쫓 빼닭은 별난 딸기가 화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이 딸기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근처 한 농장 딸기밭에서 재배중 발견되었다.

돌출한 머리부분과 녹색 부리 부분, 그리고 두 날개까지 마치 일부러 만든 플라스틱 장식물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하고 양증맞다. 게다가 딸기를 살짝 돌려서 앞으로 장식하니 마치 닭이 깔고앉은 동지처럼 보인다. 농장 부부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 딸기 사진을 농장 홈페이지에 올렸고 많은 네티즌들은 이 귀여운 ‘치킨 스트로베리’ 사진에 즐거워했다. [나우뉴스]



웨일즈

지름 ‘1.8cm’...세상에서 가장 작은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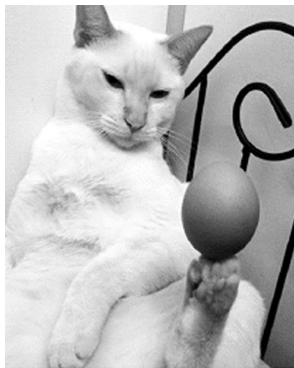
“이거는...아침식사 대용도 안 될 것 같아요” 웨일즈 남부 카마던셔 주에 사는 새년 하예스(12)가 조심스레 손에 든 계란을 보며 말했다. 집

에서 닭 7마리를 키우는 하예스는 최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란이 얼마나 있나 확인하러 닭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방금 나온 딱딱한 계란 사이로 아주 작은 알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계란이 깨질까 조심히 들고 집으로 돌아온 하예스는 지름을 재본 결과 1.8cm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예스의 계란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할 것이 유력하다. 기존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계란'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농장에서 나왔으며, 당시 측정된 크기는 2.1cm였다. [세계일보]



중 국

계란을 발 위에... 균형 감각 최고 고양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고양이가 화제와 인기다. 이 고양이의 능력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고양이 혹은 개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독창적이다. 그 어떤 고양이 심지어 개도 흉내내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인터넷을 통해 소개된 후 SNS 등에서 관심을 끄는 이 고양이의 능력은 '균형 잡기'다. 컵등에 각종 물건을 올려 놓아 관심을 끈 개는 많았다. 이 고양이는 집 안에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각종 물건을 '뒷발'에 올려놓는다. 계란, 장난감 자동차 등은 기본이다. 카드와 장난감

권총을 뒷발로 잡을 수도 있다. 이 고양이는 균형 감각은 물론 시크(?)한 표정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놀랍고 독창적인 능력을 보여줄 때도, 별 것도 아니다 같은 표정을 짓는다.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보인다. [팝뉴스]

또 먹거리 논란, 30년된 닭 날개

중국에서 30~40년 보관된 해외밀수 냉동 육류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먹거리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등 언론은 최근 해관 당국이 14개 성(省) 지역에서 냉동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밀수업체 21곳을 적발하고, 약 10만t, 30만 위안 어치의 냉동고기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압수된 유통기간이 지난 냉동고기는 40년 된 족발, 30년 된 닭 날개 등이 포함돼 1970년대에 태어난 족발, 1980년대 태어난 닭 날개 및 '장스(강시)' 고기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홍콩을 거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물류를 모으고 베트남을 거쳐 중국 내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언론들은 이들 냉동고기가 전국 노점, 음식점, 마트 등에서 팔려나갔다고 전했다. 이런 수입육이 중국 내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들 냉동육이 어떤 나라에서 수입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마트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공된 포초핑좌(泡椒鳳爪, 유명 닭발요리) 생산업체들이 이런 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계관계자들이 닭발을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표백한다고 증언하면서 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양계**